

유문암으로 조성된 국내 유일 석조여래불

강진 움천사... 7대 걸친 소장품

화산적인 유문암으로 조성된 석조여래좌상이 국내 최초로 전남 강진 움천사(회주 정암)에서 발견돼 학계와 문화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17세기에 조성된 이 석조여래좌상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석의 하나인 유문암으로 조성됐고, 얼굴은 목재로 조각해 결국조립법에 의해 완성된 독특한 형식의 불상이다. 특히 돌로 된 불상에 명주천으로 배접을 하여 개금한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청 '시·도 문화재 급' 감정 움천사 신도 친견 기회 마련키로

문화재청 손영문 문화재 불상 전문위원은 결과 보고서에서 "촉촉한 나뭇잎 조성된 머리에 큼직한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원형의 정상 계주를 갖고 있으며, 두터운 법의를 걸친 통견착의법과 가지런히 포개어 모은 선정인을 한 수인은 17세 조선시대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이다"고 밝혔다.

손 위원은 이어 "현재 전남의 17세기 불상중 절대 연대를 가지고 있는 불상이 양적으로 일부 남아 있으나, 이 지역의 불교 조각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시·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문암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서 갑자기 식어서 굳어진 암석으로 결정이 작거나 유리질이며 암석 색깔이 밝고 구성 광물로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9년부터 전남 대자울 측정 및 방사성 동위원소 비교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강진 움천사 불상은 자연 암석을 이용해 제작된 유문암에 가까운 산성 화산암류로 추정 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상 개금 전문가인 이경보 원장(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739호)도 움천사 석조여래좌상의 특징으로 "개금은 일반적으로 목불, 토불, 지불을 재료로 조성된 불상은 보통 배접을 하여 개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움천사 석조여래좌불처럼 석불에 배접을 하여 개금한 사례는 처음이다. 학계의 귀중한 연구자료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7대를 이어 보관해온 정암 스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산적인 유문암으로 만들어진 불상인 만큼 소중한 문화재이다. 앞으로 후세대를 위해 잘 보존하고, 신도들이 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석조여래좌상은 정암 스님의 은사인 정암 스님(前 선각종 종정)이 해남 대흥사에서 수행정진 할 때 은사인 각성 스님이 소중하게 보관해온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움천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유문암으로 조성된 석조여래좌상

국가 지정전통사찰 제92호로 지정된 움천사의 석조여래좌상은 높이 56cm, 무릎 너비 36cm, 얼굴길이 11cm, 귀 길이 12cm, 불상복장은 개구부 7cm×7cm 복장골 지름 5cm, 깊이 12cm 불상 무게는 33.5kg이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부처님 아들·딸로 무럭무럭 자라렴”

동원,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 정관 스님, 도반의 소중함 강조

동원(이상장 심산)은 8월 7~9일 2박3일간 부산 수영구 영주암(회주 정관, 조계종 원로의원)에서 제1회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를 열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주최, 동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위원회 설립 이후 첫 전국 규모의 어린이불교학교라서 의미가 남달랐다. 참가자는 선착순 350명에 한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50여 명의 어린이지도자 및 봉사자를 배치했다.

정관 스님은 “웃기만 스쳐도 과거생의



회향법회에서 모든 어린이 참가자에게 정관 스님에게 마정수기를 받으며,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깊은 인연이 있는 것처럼 영주암에서 2박 3일을 함께한 도반들 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부처님의 자랑스런 아들·딸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



진각종은 자성동이 풋살대회를 열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청소년 포교 발판 기대 범종단 행사로 확장 계획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가 진각종팀 경주 위탁대에서 8월 10~11일 이틀간 개막 됐다. 자성동이는 어린이법회에 참가하는 초등학생을 지칭하는 진각종단의 애칭이다.

진각종은 한국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불자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6년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진각종은 대회를 통해 어린 불자들이 종단발전과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심인당에서 16개팀 500여 명의 선수들과 중등부 6개 시범 선수단 그리고 학부모와 종단 관계자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여했다. 8강전은 대전주

침을 통해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유치부 자성동이 친선경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 화합의 장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까지 성적 우수 시상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에 일어난 팀들간의 불만을 보완해 개최 취지인 화합과 단합을 살려 매너플레이 이상 응원상 단합상 봉사상 예절상 질서상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진각종 통리원은 자성동이 풋살 대회의 경합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중등부 축구 대회로 발전시키는 한편, 불교 범종단 행사로 확장시켜 청소년 포교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진각종은 포교를 위한 축구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포교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백만독 관음 백일기도 3년 회향

9월 8일, 천태종 부산 삼광사

8월 7일 자정 무렵. 태풍 무이파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한반도 남해와 서해상을 스쳐지나갔다. 옷깃 스치듯 태풍은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지만 일본과 맞닿은 부산 전역에는 폭풍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곳엔 날씨는 천태종 삼광사의 3000여 불자들의 신심과 기도 원력을 이기지는 못했다.

삼광사에서는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일심정성 백만독 관음 백일기도'가 6월 1일~ 9월 8일까지 진행 중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 기도는 해를 거듭해 갈수록 불자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기도 원력으로 이제는 어엿한 하루 일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매일 밤 11시 스님의 집전으로 <천수경>을 독송하고, 짧은 법문을 들은 후 바로 기도가 시작돼 새벽 3시 정각에 회향한다. 하

지만 모든 불자들은 귀가하지 않고,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새벽예불에 동참한다. 그리고 마을버스 첫 차가 산문을 통과하는 5시까지 법당에서 새우잠에 든다. 이렇게 밤을 새워 치열하게 엄불수행을 한 불자들은 집으로 귀가해 가족들의 아침 밥상을 차려주거나 골장 직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김순옥 씨(58·부산진구 개금동)는 첫째에 비해 자유로운 진 수행 환경이 누구보다 반갑다. 김씨는 "첫 해에는 매일 밤 10시까지 반드시 지관 전에 작성하고, 새벽 3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진해야한다는 철칙이 있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불자들은 직장이나 집안일 탓에 매일 정시에 동참하는 규율은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도는 11시에 시작하되 누구나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춰 일찍 시작하든 서둘러 회향을 하든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 부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해를 거듭해갈수록 기도의 풍속도도 변했다. 첫 해에는 밤새도록 지도법사 스님의 집전에 맞춰 기도했다. 그러나 3년차에 접어들어 선배불자들의 안정된 관세음보살정근에 따라 초발심자들도 빠르게 배워나갔다.

이제는 스님이 처음 10분 정도만 이끌어주면 그 다음은 신도들이 기도의 중심에서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불자주도형 수행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웃집 도반의 권선으로 처음 참가한 이 미수 씨(53·기장군 정관면)는 "절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살아서 매일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버겁고 피곤해 기도 중간중간에 선상에 빠진다. 하지만 자율학습처럼 원하는 시간에 임재하고 회향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마음 가꾸기

익산 송림사 템플스테이

군산과 익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되면서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 송림사(주지 지광)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사체험과 인성교육 및 한문을 익힐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8월5~7일 2박 3일간 31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송림사 템플스테이는 발우공양, 예불, 108배, 참선, 명상, 운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직접 제작한 교재를 통해 배우는 한문 교실, 영어,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도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세안타올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올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 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헬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분들은 소박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량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헬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육상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 - 각 4,000원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 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헬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분들은 소박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량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헬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육상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의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갈래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민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에도 좋고 감각도 예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이 문지르지 않아야합니다.

현불상특별할인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헤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불상 특별할인세트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돋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